기독종교의 기독복음 죽이기

(마태복음 12:9~21)

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독종교의 기독복음 죽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기독종교의 기독복음 죽이기'
최근 언론을 통해 비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참 지독하다 여겨집니다. 이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치인들의 미움과 바리새인의 미움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한 감정일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고 짓밟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날마다 지옥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 정당간의 다툼이 없는 나라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길고 지속적으로 서로를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목사님들이 모일 때에도 눈치를 봐야합니다.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니 아예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당들이 서로를 미워하듯이 복음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리이므로 싫어할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말이지만 엄연한 사

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복음을 나라의 흥망과 연결시켜 말씀드려봅니다.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는 한 정치인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한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 혹은 재벌들에 의해 이끌려지지도 않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온 천국을 좋아해야 합니다.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 땅에 남아있지 말고 오직 가까이 온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자청할지라도 마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없다면 실제로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죽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교회라는 단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수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 복음에 대해 원수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복음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복음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죽이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죽는다면 교회 안에서 죽게 됩니다.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의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개혁되어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종교개혁은 복음이 루터나 칼뱅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복음 자신의 부활을 꾀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개혁할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기독종교인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복음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 끝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인격적으로 의존하고 연합해야 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담겨진 인격적인 의미는 예수님께로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선 설교를 통해 그 이유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잘 드러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위상이 전혀 달랐기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었고 안식일 논쟁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안식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강조했던 마음의 거리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고 나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몸이 있고 몸으로 만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써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지나친 채 몸으로 만나는 삶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독종교가 된 것입니다.
안식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간과하고 지나쳐서 몸으로 만나는 삶을 향하게 된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장사도 해야 하고 자녀도 돌봐야하고 부부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나쳤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세상의 어떤 일이나 대상에도 얽매이지 않는 순백의 상태가 되어서 아담의 첫 날과 같이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손 마른 사람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안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써 만나고 관계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전달되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기운이 입과 손발로 나타날 때에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선이란 옳은 일이며 행할수록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운으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에는 설령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평강과 행복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만남이 하나님이 아닌 몸으로 만나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녀를 첫 번째 만남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자녀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운은 안식이 될 수 없고 그 기운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 또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마음이 만나는 첫 번째 대상일 때에는 걱정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첫 번째 대상일 때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해 분노나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이 첫 번째 대상일 때에는 늘 불안하여 탐욕과 욕망이 끓어오르게 됩니다. 권력이 첫 번째 대상이 될 때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목불인견의 상황을 만민 앞에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특징은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

으로 만났을 때에 주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의 기운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식하지 않고 마음이 곧바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한다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 사이의 중립이란 없습니다. 안식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악입니다.
자녀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자녀를 등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서 안식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기운을 따라서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손 마른 사람처럼 안식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운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의 근육과 신경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로 대할 때에 선에 대해서 이렇게 굳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설령 사랑을 고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양에서는 사랑한다(love)는 말보다는 보다 노골적으로 원한다(need)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식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세포조직이 말라 죽게 된 증거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 또한 이러한 상태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감은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무척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시고 만져지지도 않으시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서 수직으로 하늘을 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밟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지고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결코 죽은 뒤에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원죄를 가진 인간은 가까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원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기에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몸과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았던 것이 아니라 돈과 관계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본문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은 기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그 대표적인 대상이었고 자녀의 형통이나 건강장수 등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 하였고 이것들을 많이 얻기 위해 전능한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스쳐 지나침으로 마음이 똑같이 삶의 현장으로 나와서 죄악의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등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마음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도울 전능한 존재를 필요로 하여 원하는 신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따라서 종교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하게 보이는 행동을 할지라도 외식하는 위선이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동하는 것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지점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곳으로써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순백의 마음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품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능한 신을 찾게 됩니다. 그 신의 이름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부르든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에 종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종교는 복음과 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 땅이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절대로 세상을 놓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관계를 맺은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최우선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 가족이 잘 되어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한다, 노후가 보장이 되어야한다, 심지어 목회 현장에서 교인이 늘어나고 재정이 풍부해져야 한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 품은 일들이 잘 되기 위해 전능한 신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와 복음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출발하지만 정반대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들리는 가장 가증스럽고 신성모독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합당하게 들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18절에서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가장 큰 신성모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지만 우리처럼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이 몰릴 때에 그들을 피하시고 기적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입니다. 자녀의 형통, 건강장수, 돈 많이 버는 것, 성공과 형통을 통해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래처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융숭한 접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충성이나 봉사나 많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좋음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만이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희생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라는 복을 통째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즉 손 마른 것이 고쳐져서 선을 베풀 수 있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종교의 정체성을 뿌리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등지고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목표로 추구하기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말로 장사를 하며 세상 것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신령할 정도로 하늘을 사랑하는 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술 먹고 마약해야만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가치들을 기쁨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붙어있을 때에 전능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기독종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십자가를 붙잡는 기독복음을 죽이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하에 죽이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죽인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면 바보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복음을 되살려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날마다 안식함으로써 복음을 살려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살아서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손대는 것마다 선을 행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나쳐 삶의 자리로 나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돌아오게 해주셔서 안식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따라 말하고 손댈 때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